

조선 전기 관요백자의 명문이 갖는 二元的 성격

박정민*

- I. 머리말
- II. 관요성립 이전의 백자생산과 명문
- III. 관요백자에 표시된 명문의 종류와 의미
- IV. 사용원과 내수사의 관요백자 생산
- V. 맺음말

I. 머리말

白瓷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瓷器이다. 조선초기에는 전국에서 다양한 粉靑瓷가 제작되었으나 백자의 제작과 쓰임이 점차 커지며 瓷器文化는 백자로 귀결된다.

조선시대 백자 생산의 중심은 官窯였다. 조선정부는 관요를 통해 필요한 백자를 제작했다. 국가에서 사용되는 백자의 제작은 御膳과 궁궐의 음식사무 전반을 책임졌던 司饗院이 담당했고, 사용원은 경기도 광주에 자리한 자기소를 관영자기제작공장으로 삼아 필요한 백자를 충당했다.

이러한 관요의 성립은 세조가 1466년(世祖 12) 4월과 6월에 백자를 進上用으로만 한정하고 그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면서 구체화된다.¹ 그러므로 조선시대 관요의 성립이 1466년 세조가 백

* 한울문화재연구원

자를 진상품으로 한정하는 단계부터 이루어졌다는 연구도 이루어졌다.²

세조는 1467년(世祖 13) 4월에 司饗房을 사용원으로 승격시키고 祿官을 배치했다.³ 이때부터 사용원은 본격적으로 제반업무를 전담할 인원과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⁴

1466년에 편찬이 일단락되고 14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經國大典』에는 386명의 사기장이 사용원과 內需司에 배속되었음이 기록되었다.⁵ 사용원은 사용방의 확대와 사기장의 배치로 필요한 백자를 직접 생산했고 내수사도 배속된 사기장을 통해 백자를 확보했다.

조선정부가 사용하는 백자의 생산이 관요로 일원화되면서 그릇을 관리하는 방식도 변했다. 이 논문은 관요성립 이후에 관요에서 생산된 백자에 표시된 명문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여 관요 백자의 관리방식과 주체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알려진 ‘天·地·玄·黃’명의 의미에 대해 입체적으로 추론해보고, 관요백자에 표시된 ‘大·中·世·處’명의 존재를 통해 사용원에 의해 주도된 조선 전기 관요백자생산에 내수사가 함께 했음을 밝혀 보겠다.⁶

II. 관요성립 이전의 백자생산과 명문

관요성립으로 인한 조선정부의 백자 관리방식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요성립 이전에 제작된 백자에 표시된 명문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토된 명문백자와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관요성립 이전에도 전국의 여러 곳에서 백자를 제작했다. 대표적인 곳은 강원

¹ 『世祖實錄』 38卷, 12年(1466) 4月 18日 戊午條. …(전략) “磁器는 이제부터 進上하는 것 외에, 公私處에서 널리 행하여 쓰는 것을 일절 금한다. 京外에 匠人이 몰래 숨어서 자기를 만들어 저자 안과 朝官·庶人의 집에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자는 違制律로 논한다.”하였다; 『世祖實錄』 39卷, 12年(1466) 6月 7日 丙午條. 工曹에서 아뢰기를, “白磁器는 進上과 이전에 燒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工人까지도 制書有違律로써 科罪하도록 하고, 또 工物을 정하지 말고서 公事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白土가 産出되는 곳은 所在邑으로 하여금 盜用을 금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本曹와 承政院에 간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² 전승창,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 71-73.

³ 『世祖實錄』 42卷, 13年(1467) 4月 4日 己亥條. 司饗房을 고쳐서 司饗院이라 하고, 비로소 祿官을 두었다.

⁴ 선행연구는 대부분 이 시점을 관요의 성립으로 파악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104-110.

⁵ 윤국일 옮김, 『新編 經國大典』 (신서원, 2005), pp. 489-490, pp. 493-494.

⁶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관요백자의 명문분석을 통해 명문이 이원적 성격으로 표시되는 이유가 관요백자의 제작에 사용원과 함께 내수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박정민,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도 楊口,⁷ 경상도 高靈,⁸ 전라도 南原과 高敞,⁹ 경기도 廣州와 永平 등이다.¹⁰ 경상도 尙州 역시 왕실이 요구하는 瓷器를 제작했으나 당시에 생산된 그릇이 백자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¹¹

관요성립 이전에 제작된 백자에 표시된 명문은 동시기 제작된 분청자와 마찬가지로 官司名과 地名이다. 관사명이 백자와 분청자에 표시되는 것은 각 司號를 그릇에 새기도록 하는 1417년(太宗 17)의 기록과 관계가 있다.¹² 그릇이 유실되는 것을 막고 누가 생산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그릇에 명기하도록 한 이후에 각종 관사명과 지명이 표시된 분청자가 제작되었고 그 중 일부 명문은 백자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된 백자에는 왕실의 內用物品임을 나타내는 ‘內用’ 등의 명문이 표시되었다.

겉모습이 다른 백자와 분청자에 동일한 명문이 새겨진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자에 대한 選好가 커져감에 따라 조선정부는 지방에서 공납되던 분청자와 소량의 백자 대신에 관요를 마련하여 필요한 백자를 직접 생산, 관리했다.

관요성립 이후에는 백자에 부여되는 명문의 표시방법 또한 변화했다. 관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방에서 제작된 백자는 주로 印刻기법으로 명문이 표시된다. 일부 陰刻기법으로 명문이 표시된 백자도 확인되지만 그 수는 적은편이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분청자에 표시된 명문 역시 상당수가 우선 도장으로 찍은 다음 백토를 상감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명문의 표시 방식은 전국에 걸쳐 나타난다.

7 박정민, 「명문백자로 본 15세기 양구(楊口)지역 요업의 성격」, 『강좌미술사』 32(한국미술사연구소, 2009), pp. 75-102.
8 김숙자(金叔滋, 1389-1456)가 고령현감으로 제직하는 1442년에서 1447년 사이의 기록을 통해 관요성립 이전부터 경상도 고령, 전라도 남원,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를 進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佔畢齋集』 葬錄 先公事業 第四…(전략) 이에 앞서서는 그릇을 진헌(進獻)할 적마다 광주와 남원의 공인은 상(賞)을 받고, 고령현의 공인은 흔히 죄를 받았는데, 지금은 고령현의 공인은 상을 받고, 광주와 남원의 공인은 도리어 전책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선공의 은택을 힘입고 있다.
9 전라도 고창 용산리 가마터에서 ‘禮賓’과 ‘內賓’명 백자가 출토되었으며, 고창 용계리 가마터에서는 ‘內膳’명 백자가 확인되었다. 호남문화재연구원, 『고창 용산리요지』(2004); 『고창 용계리요지』(2008).
10 현재 경기도 포천시 북부에 해당하는 永平縣에서 이루어진 백자생산에 관한 연구로는 박정민, 『조선 15세기 전반 경기도 영평현의 백자제작 배경과 특징』, 『강좌미술사』 44(한국미술사연구소, 2015), pp.267-291.
11 『太宗實錄』 21卷, 11年(1411) 4月 29日 己未條. 內監 安和尚을 慶尙道 中牟·化寧 등의 縣에 보내어 花器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12 『太宗實錄』 33卷, 17年(1417) 4月 20日 丙子條. 戶曹에서 器皿除弊의 事宜를 올려 말하기를, …(중략)… “장흥고의 貢案付砂木器에 금후로는 ‘長興庫’라 三字를 새기고, 기타各司에 납부하는 것도 또한 장흥고의 예에 의하여 각기 그 司號를 새겨서 제품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고, 윗항의 標가 있는 器皿을 私藏하다가 드러난 자는 官物을 훔친 죄를 받게 함으로써 큰 폐단을 끊게 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관요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작된 관요백자의 명문은 주로 釉面陰刻기법으로 표시된다. 유면음각기법은 초벌 燻造된 그릇에 유약을 입힌 다음에 굽 안쪽의 유약을 긁어 명문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관요백자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특징이다.

관요의 성립과 함께 백자에 표시되는 명문의 내용과 표시방식이 크게 변화된 것이다.¹³

Ⅲ. 관요백자에 표시된 명문의 종류와 의미

조선정부는 관요를 통해 필요한 백자를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관사명과 지명과 같은 기존의 명문이 아닌 관요백자의 출납을 원활하게 통제할 새로운 명문이 필요했다. 관청별로 이루어진 기존의 백자출납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백자의 생산, 운송, 출납을 사용원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표시되는 명문의 체계는 각 단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해야만 했다.

관요성립 이후 백자에 표시된 대표적인 명문은 사용원의 일반소용을 위한 ‘天·地·玄·黃’명과 관요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제작되었던 內用백자에 해당하는 ‘大·中·世·處’명 등 두 종류이다. 두 종류의 명문은 대부분 발과 접시 같은 반상기에 표시되었으며 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릇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1. ‘天·地·玄·黃’명의 의미와 표시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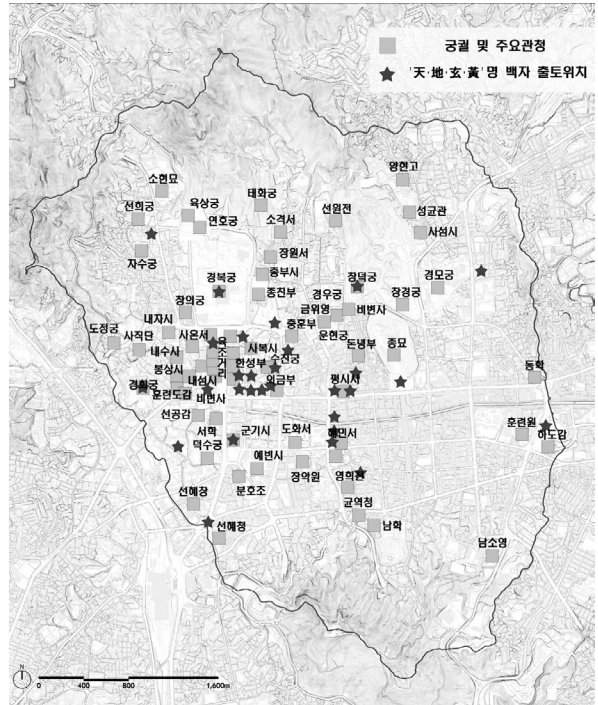
사용원은 御膳과 궁궐의 음식관련 사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진상품의 관리, 국왕 수라의 배석, 백자의 출납까지 매우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음식과 연계된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수의 提調와 담당관이 필요했다.¹⁴

¹³ 관요성립 이후에 변화된 명문의 표시방식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박정민, 앞의 논문(2014), pp. 112-113.

¹⁴ 『經國大典』에 나타난 사용원의 소속관원을 보면 都提調 1인, 提調 4인, 副提調 5인인데 부제조 1인은 승지가 겸임하였다. 또한 提舉·提檢을 합쳐 4인을 두었고 그 외에 正 1인, 僉正 1인, 判官 1인, 主簿 1인, 直長 2인, 奉事 3인, 參奉 3인 등을 두었다. 이러한 사용원의 官吏는 주로 실무에 능한 자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成宗實錄』 137卷, 13年(1482) 1月 30日 己亥條. 司饗院提調 尹士昕이 아뢰기를, “本院의 僉正 李文興은 師儒에는 합당하지만 본원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하여 합당하지 못한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이문흥은 젊을 때부터 글만 읽었지 관리의 일은 경험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師儒의 職을 제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그 중에 食器의 관리는 식재료의 확보만큼 중요하고 번잡한 업무였을 것이다. 사용원이 관리했던 그릇 중에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는 식기는 주로 銀器 등의 금속 기였을 가능성이 높다.¹⁵ 그러므로 사용원의 ‘天·地·玄·黃’명 백자는 여러 관리에게 제공되는 宣飯을 비롯한 껌내 각종 음식사무에 쓰이거나 국왕이 껌밖의 대소신료에게 하사하는 술[宣醕]을 담아내는 容器였을 것이다.¹⁶

실제 서울지역의 발굴조사 결과, 종로구와 중구의 많은 유적에서 ‘天·地·玄·黃’명 백자가 출토되어 당시 관요백자가 사용된 지역을 가늠해 볼 수 있다(도 1).¹⁷ ‘天·地·



도 1 도성內 ‘天·地·玄·黃’명 백자 출토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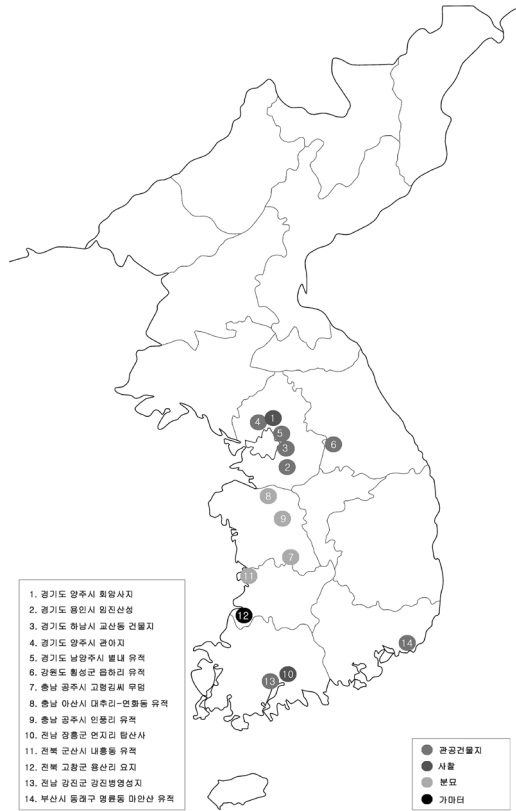
¹⁵ 『世祖實錄』 21卷, 6年(1460) 9月 5日 戊寅條. 도독이 御廚의 銀器를 훔쳤으므로, 명하여 都城門을 닫고 수색하게 하였다; 『世祖實錄』 23卷, 7年(1461) 3月 13日 甲寅條. 兵曹에 전지하기를, “司饗房의 여러 色掌遞兒 내에서 8품 체아 하나는 銀器를 관장하는 자 8인에게 돌려가며 주도록 하라.” 하였다. 양녕대군은 폐위된 이후에도 은기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조선 전기 왕실의 은기 사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太宗實錄』 35卷, 18年(1418) 6月 7日 丙戌條. 讓寧大君 李裨에게 飯床에 소용되는 銀器 1벌과 酒器 1벌을 내려 보냈다.

¹⁶ 『世祖實錄』 3卷, 2年(1456) 4月 23日 壬戌條. 왕세자와 世子嬪이 좌의정 韓確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餞送하니, 명하여 우승지 韓明澮를 보내어 宣醕을 내려주었다. 이때 한확은 謝恩使로 명나라로 나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睿宗實錄』 3卷, 1年(1469) 2月 14日 己亥條. 앞서 임금이 宦官을 보내어 兪僉事 丘從直의 집에 宣醕을 하사하였으므로, 구종직이 謝恩詩를 지어 올리니, 승정원으로 하여금 음식을 대접해 먹이게 하고, 御書로 이르기를, “내가 경의 老實한 秀才를 아름답게 여기니, 사양하지 말고 즐겁게 마셔라.” 하였다. 구종직이 院相 韓明澮와 승지들과 더불어 마음껏 마시고 취해서 돌아갔다; 『中宗實錄』 63卷, 23年(1469) 10月 16日 甲寅條. 전교하기를 “노인들이 이미 宣醕을 마셨으니, 여주에서 한 대로 일시에 일어나 춤추고 나가게 하라.” 하였다. 노인들이 일어나 춤추고 나가니 시위하던 李宰도 차레로 나갔다.

¹⁷ 지도에 표시된 ‘天·地·玄·黃’명 백자가 출토된 유적은 2015년 하반기까지 보고서가 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아직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은 여러 유적은 이번 위치표시에서 포함시키지 못했다. 현재 발굴조사 보고서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2년 이후에 간행되므로 차후 도성에서 天·地·玄·黃’명 백자가 출토된 유적은 분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玄·黃명 백자는 궁궐과 육조거리를 중심으로 주로 출토되며, 訓練院이 자리했던 동대문 인근이나 軍器寺와 宣惠廳으로 이어지는 남대문로 주변에서도 출토된다. 또한 시전행랑이 위치하는 종로대로변의 여러 유적에서도 ‘天·地·玄·黃’명 백자가 출토된다.¹⁸

‘天·地·玄·黃’명 백자는 都城은 물론 지방의 여러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天·地·玄·黃’명 백자가 출토된 전국의 유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아지, 분묘, 사찰, 가마터 등으로 구분된다.¹⁹ 그 중에서도 주로 관청건물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天·地·玄·黃’명 백자가 출토되는 사실을 통해 해당 유물이 官物로서 지방의 관청에까지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관요백자를 사용할만한 정도의 지방 유력자나 왕실과 연계된 寺刹에서도 ‘天·地·玄·黃’명 백자가 출토된다(도 2).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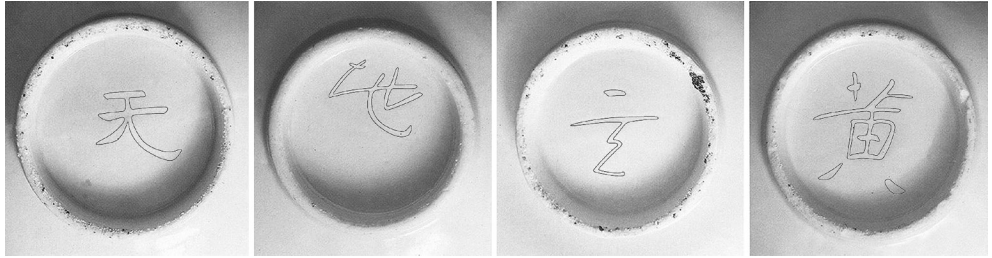


도 2 ‘天·地·玄·黃’명 백자 출토유적

¹⁸ 조선 국왕은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각처에 술을 내려주었다. 또한 궁궐과 도성에 자리하는 관청별로 술을 선물해 위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임금에 내려주는 술을 宣醞이라한다. 조선 국왕은 신하들의 사기를 높이고 임금으로서의 예를 표하기 위해 빈번하게 선운을 하사하였다. 『世宗實錄』 23卷, 6年(1424) 3月 17日 癸巳條, 內官崔龍을 보내어 都城修築都監에게 宣醞 10병을 내려 주었다; 『成宗實錄』 11卷, 7年(1471) 8月 9日 己酉條, 金國光이 와서 임금께서 宣醞을 하사한 것을 謝恩하고, (후략)…; 『成宗實錄』 65卷, 7年(1476) 3月 1日 甲辰條, 原城君 安仲敬을 보내어 左議政 韓明澮의 집에 宣醞을 하사하였다; 『成宗實錄』 281卷, 24年(1493) 8月 18日 庚辰條, 宣醞을 讀書堂에 내려 주고, 인하여 水精杯를 하사하였는데, 吏曹佐郎 申用溉 등이 箋文을 올려 은혜를 사례하였다; 『中宗實錄』 14卷, 6年(1511) 8月 15日 壬辰條, 승정원·홍문관·예문관에 宣醞하였다. ‘滄亭望月’이라 御題하고 7언 율시 3수씩 지어 바치도록 하였으며,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¹⁹ ‘天·地·玄·黃’명 백자가 출토된 전국의 유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민, 앞의 논문(2014), pp.180-190.

²⁰ 조선 국왕은 지방에 거주하는 신하들에게도 선운을 내려주었던 당시 상황이 지방에서도 관요백자가 출토되는 원인에 해당할 것이다. 『太宗實錄』 9卷, 5年(1405) 6月 23日 丁亥條, 判宗簿寺事 金觀道·監正 金尙旅를 보내어 宣醞을 가지고 鄭昇과 金角의 고향에 가서 그들을 위문하게 하였다.



도 3 <백자 '天·地·玄·黃'명발>(국보 286호) 명문세부, 삼성미술관 리움

'天·地·玄·黃'명 백자는 사용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사용되었다. 더불어 관요백자는 사용원의 음식사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므로 소모되는 수량이 많아 매년 새로이 관요에서 제작되어 수요에 부응하였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사용된 관요백자의 출납과 재고관리는 사용원 업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따라서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에는 천자문의 자호와 같이 물품 구분에 적합한 명문을 표시하여 출납의 효율성을 기했다.²¹

'天·地·玄·黃'명 백자는 주로 匣燻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반적인 질이 양호하여 당시 관요백자의 우수한 제작수준을 보여준다(도 3). 또한 '天·地·玄·黃'명 백자는 관요성립 이후부터 1560년대까지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어 편년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²

'天·地·玄·黃'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호별로 구분된 御庫에 백자를 수납하기 위한 기호라는 접근이 있었다.²³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천자문의 자호를 백자제작과 연계되거나 혹은 사용처의 구분을 위한 표시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했다.²⁴ 또한 최근에 천자문의 자호가 사기장의 입역에 따른 표시로 인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²⁵

'天·地·玄·黃'명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자문의 자호가 동일한 크기와 질의 백

21 천자문의 자호는 한자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순차기호이다. 一, 二, 三, 四 등의 숫자는 획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조가 가능하므로 공문서에는 일반 숫자보다는 천자문의 자호를 적극 활용했다. 『光海君日記』 57卷, 4年(1612) 9月 21日 壬子條. 호조가 아뢰기를, “各司의 현재 쌓여 있는 雜物의 실제 수요는 오로지 會計를 보고서 파악하므로 한 글자가 빠지거나 한 획이 잘못되면 잃는 것이 적지 않으니 상세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22 박정민, 앞의 논문(2014), pp. 127-139.

23 윤용이, 「광주 관요의 변천과 청화백자」, 『조선백자전Ⅱ』(湖巖美術館, 1985), p. 66; 同著者, 『韓國陶磁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 371.

24 전승창, 앞의 논문(2007), p. 91.

25 박형순, 「조선시대 관요 백자 명문의 성격」, 『역사와 담론』 65(湖西史學會, 2013), pp. 519-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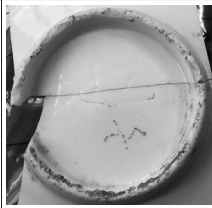

자에 표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천자문의 자호는 제품의 외형이나 질적 차이로 해석될 수 없다. 더군다나 ‘天·地·玄·黃’명 백자가 한 건물지에서 모두 출토되기도 하므로 각각의 천자문 자호가 특정 소비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²⁶ 또한 ‘天·地·玄·黃’명은 제작 당시에 표시된 유면음각의 명문 옆에 점각기법으로 다른 자호가 새롭게 부가되기도 한다(표 1).²⁷ 점각명문이 주로 그릇이 사용되는 과정에 표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天·地·玄·黃’과 같은 명문을 백자의 생산과 연계된 명문으로 인식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출토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요백자에 표시된 천자문 자호는 사용원에서 백자의 출납을 관리하기 위한 구분표시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료 1〉

전교하였다. “司饗院에서 받은 永慶殿 앞에 排設한 沙器를 형조로 하여금 맞는지 대보도록 한 것은 각 色掌의 上言을 옮겨 여겨서가 아니라, 간사한 거짓을 적발하고자 한 것이다. 사용원이 당초에 이미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들여놓았다가 여섯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꾸어 들이기로 移

〈표 1〉 점각기법으로 변화된 ‘天·地·玄·黃’명 백자의 字號

도판				
유물명	〈백자 ‘天’ 명발〉	〈백자 ‘地’ 명저부편〉	〈백자 ‘地’ 명접시편〉	〈백자 ‘玄’ 명저부편〉
명문 변화	天→玄	地→黃	地→玄	玄→黃
비고	높이 7cm 개인소장	현재높이 3.9cm 종로 청진2-3지구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현재높이 5.9cm 종로 청진2-3지구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현재높이 2.9cm 종로 청진12-16지구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²⁶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 청진12-16지구유적』 Ⅲ(2013), pp. 640-641; 박정민·송호진·여영남, 「서울지역 출토 조선 전기 백자의 출토양상」, 『제10회 경기도자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최근 발굴 조사된 가마터 조사성과』 (경기도자박물관, 2015), p. 70.

²⁷ 박정민, 「點刻銘이 부가된 ‘天·地·玄·黃’銘백자들의 사용시기와 성격」, 『역사와 담론』 61(호서사학회, 2012), pp. 445-476.

報하였기에 새겨진 표[刻標]를 고찰하려 한 것이다. 형조가 본司의 뜻으로 대어보려고 하였다면, 사용원 관원로서는 오히려 즉각 提調에게 고하고 倉庫를 열고서 내보냈어야 한다. 이번 傳旨에 따라 대어보려고 하자 제조의 倉庫[提調之庫]에 가져다 간수했다고만 대답을 하고 즉시 내보내지 않아 지극히 불가하였으니 사용원 관원을 추고하라.”²⁸

〈사료 1〉을 보면 사용원의 그릇은 제조의 倉庫에서 출납되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원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4명의 提調가 교대로 일을 담당했고, 따라서 사용원에는 제조가 직접 관리하는 倉庫가 마련되었다.

사용원의 실제 운영은 4명의 제조에 의해 번갈아 이루어졌으므로 倉庫와 그 안에 적재된 물품에 특정 담당자를 직접 명기하지 않고 단위별로 구분될 수 있는 ‘天·地·玄·黃’명을 표시하여 관리책임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 대처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사료 1〉에 언급된 백자의 출납 근거인 刻標는 백자에 표시된 천자문의 자호와 같이 파서 새겨진[刻] 어떠한 명문[標]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관요백자에 ‘天·地·玄·黃’과 같이 4개의 천자문만이 사용된 이유는 동일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4명의 제조가 교대로 수행했던 사용원의 업무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용원의 실무 책임자인 제조의 인원수는 1423년(世宗 5)만 해도 左, 右 4개의 番으로 나뉘어 12명으로 정해졌다.³¹ 그러나 1460년대 마련된 『經國大典』에는 사용원의 제조가 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1867년 반포되는 『六典條例』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사용원의 都提調 1인은 상징적인 자리로 주로 議政府의 三政丞이 겸직하며, 제조의 업무를 보조하는 5명의 副提調 역시 承政府의 承旨나 宗親이 겸직한다.³² 그러므로 사용원의 업무를 실

²⁸ 『中宗實錄』 62卷, 23年(1528) 8月 17日 丙辰條. 傳曰 司饗院所捧永慶殿前排沙器 使刑曹憑準者 非以各色掌上 言爲是也 亦欲發其奸僞也 司饗院當初 旣無事納之 而及至六朔 始以換納移報 故欲考刻標也 設使刑曹 以其司中之意 欲爲憑準 爲司饗院官員者 猶當卽告于提調 開庫出送 今乃以傳旨 欲爲憑準 以入藏提調之庫答之 而不卽出送 至爲不可 司饗院官員 其推之.

²⁹ 永慶殿은 中宗(1488-1544, 재위 1506-1544)의 妃인 章敬王后(1491-1515) 尹氏의 魂殿이다.

³⁰ 다수의 제조가 동일한 업무를 돌아가며 수행했던 사용원의 업무형태에 관한 사료정리는 박정민, 앞의 논문(2014), p. 120, 각주 284 참조.

³¹ 『世宗實錄』 19卷, 5年(1423) 3月 24日 乙巳條. 이조에서 각 官司의 實案提調와 提調를 아뢰었는데, …(중략)… 司饗左一番都提調 1명, 提調 2명, 左二番提調 3명, 右一番提調 3명, 右二番提調 3명 (후략)…

³² 『成宗實錄』 62卷, 6年(1475) 12月 13日 戊子條. 司憲府大司憲 尹繼謙 등이 筭기를 올리기를, “모든 司의 都提調는 正一品이고, 提調는 從一品 이하의 堂上官이 되는데, 도제조는 地位가 높아 항상 앉아 있지 아니하고 제조만이 앉아서 官吏들의 勤慢을 살피며 (후략)…

제 총괄하고 운영하는 것은 4명의 제조였다.³³

실제로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1467년(世祖 13) 이전부터도 사용방의 인원과 구성은 司饗四番을 기준으로 삼아 4의 배수로 이루어졌다.³⁴

사용원은 관리책임자인 4명의 제조마다 각각 백자를 관리했으므로 제조의 인원수와 같은 4字的 천자문 자호가 백자에 표시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사료 1〉처럼 사용원 제조의 창고에서 백자를 출납할 경우에는 제조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4명의 제조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번갈아 담당하는 복잡한 환경에서는 백자의 출납에 혼선을 막고 재고량을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한 ‘天·地·玄·黃’명이 생산단계에서부터 표시되어야만 했다.³⁵

또한 사용원은 백자의 제작을 감조하고 그 제작이 끝나면 수납과정까지 담당했으므로 완성된 백자를 창고에 효과적으로 격납하고 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천자문의 자호는 적절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만약 관요에서 생산된 백자 중에 10개, 혹은 100개 단위로 명문이 표시되었다면, 천자문의 자호는 생산에서 출납까지 일련의 물류체계를 관리하기에도 유용했을 것이다.³⁶

천자문의 자호는 관요백자의 관리뿐만 아니라 瓦罽에서 제작되는 기와의 구분과 출납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천자문 자호의 성격과 의미는 다른 관영수공업 체제에도 적용되었

³³ 『經國大典』이 반포되는 것은 1485년이지만 1460년에 완성된 戶典을 시작으로 六典이 완성되는 것은 1466년(世祖 12)이므로 관요의 체제가 갖춰지던 시점의 사용원에는 네 명의 제조가 편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제조 이하 여러 관원들이 품등별로 사용원에 배속되었으나 正, 提舉, 提檢 등은 無祿官으로 國婚(嘉禮)이나 외국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잔치가 있을 때에 선발해서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평시의 실무책임은 제조들이 전담했다.

³⁴ 『世宗實錄』 105卷, 26年(1444) 潤7月 5日 壬午條,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전에 工匠이나 雜技를 가진 자가 한때의 공로의 賞으로 西班牙의 軍職을 제수 받아 朝班에 섞이는 것이 매우 온당하지 못하였으므로, 司饗四番 내에 加設한 司正 4인, 副司正 8인, 給事 8인, 副給事 12인과 공장 및 잡기에 대한 임시 賞職을 조반에 섞이지 못하게 한 것은 실로 훌륭한 법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사용사번의 各品 내에 司直 4인, 副司直 4인, 司正 4인, 副司正 4인, 給事 8인, 副給事 8인은 그대로 계속 사용 제원의 버슬을 주며, 사직 4인, 부사직 4인, 사정 8인, 부사정 12인, 급사 12인, 부급사 16인을 제외하고는 上林園에 예속시켜서 공장, 잡기를 가진 자와 천인 등에게 除授하여 良賤을 구별하게 하십시오. …(중략)…”하니, 그대로 따랐다.

³⁵ ‘天·地·玄·黃’의 구분은 급작스럽게 책임자가 바뀌어도 다른 담당자들이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방식이었다. 또한 담당 제조마다 별도로 창고를 관리했다면 더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릇의 출납 또한 편리했을 것이다.

³⁶ 최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出水된 마도4호선의 유물 중에 ‘內膳’명 분청자들도 10점 혹은 20점의 포장단위 중 하나만 접에만 명문이 표시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마도4호선 수중발굴조사 성과보고 자료집』(2015).

을 것으로 사료된다.³⁷

관요백자의 출납관리에 천자문의 자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유추하기 위해서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官物의 보관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각 관청은 직접 사용하거나 지불수단으로 활용할 곡식과 포목을 보관하기 위해 많은 창고가 필요했으며, 창고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사료 2〉

…(전략) 軍資監이나 豐儲倉과 같은 각 관청의 쌀과 밀은 저축한 年月이 가장 오래 된 창고를 爲 首로 하여, 千字文 글자로 標號를 만들어서 宥官에게 나누어 맡기고, 교대할 때에는 이미 창고로 들어온 미곡의 수량을 가지고 전하여 맡기게 하되, 만약 흠축이 있다고 하면 유사에 통보하여 즉시로 추징 변상하게 하고, 事由欄에 명백하게 갖추어 기록하여 후일에 상고하는 데에 빙거가 되게 하고, 金銀錢帛 등 제반 물품도 역시 분류하여 창고에 넣게 하고, 그 나누어 맡는 것이나, 교대할 때에 넘겨주는 것이나, 추징하는 것은 모두 위의 예에 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³⁸

〈사료 2〉와 같이 효율적인 창고관리와 투명한 물품출납을 위하여 각 창고에는 천자문의 자호를 이용한 標號를 부여했다. 이 때 가장 오래전에 물품이 수납된 창고부터 순서대로 자호가 부여되었다. 또한 창고는 그 안에 수납되는 물품을 종류별로 구분하기도 했다. 따라서 창고에 부여된 명칭은 항구적이지 않았다. 기존의 물품이 모두 빠져나가고 다른 종류의 물품이 들어오거나 새롭게 담당자가 배정되면 각 창고에 부여된 천자문의 자호는 변동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최초로 유면음각으로 표시된 천자문의 자호 옆에 새로운 자호가 점각기법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자문 자호를 이용한 그릇의 출납관리는 사용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큰 사찰에서도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서산 보원사지에서는 굽 안쪽에 ‘天’, ‘玄’, ‘黃’ 등이 표시된 백자와 함께 승려의 法

³⁷ 傳 世宗大王 初葬地(舊 英陵) 발굴조사 결과 곡담 기저부에서 다량의 명문기와들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는 方廓 안에 ‘天’, ‘地’, ‘宇’명을 인각한 명문와편들이 ‘別左’, ‘別右’, ‘本左’, ‘本右’등의 명문기와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천자문의 자호는 백자와 기와 같은 관영수공업품의 생산과 소비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범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화재청, 『傳 世宗大王 初葬地(舊 英陵) 發掘調査 報告書(2009)』.

³⁸ 『世宗實錄』11卷, 3年 1月 16日 己卯條, …(전략) 其軍資 監豐儲倉等各司米口 以所儲年月最久間閣爲首 以千字爲 標號 令祿官分掌 當交代時 已反庫米穀 計數傳掌 如有虧欠 移文攸司 隨即追徵 解由內 明白具錄 以憑後考 金銀錢 帛等諸般之物 亦令分類 入庫 其分掌及交付追徵 竝依上項例 從之.

〈표 2〉 서산 보원사지 출토 백자에 표시된 묵서의 내용별 구분

도판						
묵서	天	天	玄	黃	應均	法眞
출토 유구	건물지2	건물지28	건물지21 복서편	축대3-1 부근	축대2 상부	건물지4
내용 (구분)	천자문 자호 (보원사 소유의 그릇)				승려이름[法名] (개인의 그릇)	

명이 墨書된 백자가 함께 출토되었다(표 2).³⁹ 법명이 묵서된 백자와는 달리 천자문 자호가 표시된 백자는 특정인에게 소속되지 않고 사찰에서 범용되었던 그릇일 가능성이 크다. ‘天’, ‘玄’, ‘黃’ 등이 묵서된 백자들이 각기 다른 유구에서 출토되며, 같은 ‘天’자가 표시된 백자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출토상황을 고려할 때, 각각의 천자문 자호는 특정 사용처를 의미한다기보다 관리를 위한 구분기호로 해석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관요백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巨刹에서도 절의 이곳저곳에서 사용되는 그릇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 천자문 자호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2. ‘大·中·世·處’명의 의미와 표시배경

조선 전기 관요백자의 대표적인 명문은 ‘天·地·玄·黃’명과 함께 ‘大·中·世·處’ 등의 명문이 있다(표 3). ‘天·地·玄·黃’명이 ‘一·二·三·四’ 혹은 ‘甲·乙·丙·丁’과 같은 순차적인 구분단위인데 비하여 ‘大·中·世·處’는 각기 별개의 의미를 지닌 명문이다.

‘大·中·世·處’ 등의 명문이 의미하는 바를 각기 고찰하여 천자문의 자호와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추론해보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大’와 ‘中’명은 각기 大殿과 中宮殿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필자 역시 선행연구의 주장에 동의한다.⁴¹ 그렇다면 ‘大’와 ‘中’명은 사용원에서 관리했던 관요백자에 표시된 ‘天·地·玄·黃’명과 성격이 다른 명문이다. 천자문의 자호는 4명의 제조를 나누는 단순 구분

³⁹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瑞山 普願寺址Ⅰ』(2010); 『瑞山 普願寺址Ⅱ』(2012). 보원사지의 발굴조사에서는 應均, 法眞, 惠正, 致崑, 靈須 등 법명으로 간주되는 묵서가 표시된 백자들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⁴⁰ 조선 전기 사찰에서 그릇의 관리를 위해 사용된 천자문 자호 명문에 관한 언급은 박정민, 앞의 논문(2014), pp.118-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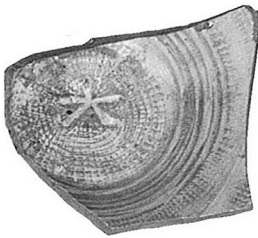
〈표 3〉大内に 속하는 사용처를 나타내는 명문

도판				
명문	大	中	世	処(處)
사용처	대전	중궁전	세자전	왕족 및 내수사 일반소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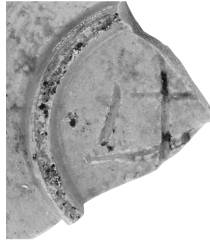
기호로 백자에 표시되었으나, '大'와 '中'은 명문이 표시된 백자가 활용될 사용처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관요백자에 표시된 명문이지만 두 종류의 명문은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르다.

조선 전기 관요백자에 표시된 명문 중에 '世'명 역시 '大'와 '中'명처럼 백자의 사용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大'와 '中'이 대전과 중궁전을 나타내는 것처럼 '世'는世子殿을 의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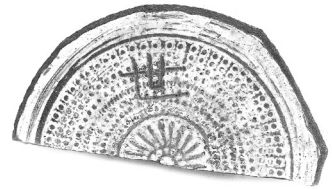
대전, 중궁전 등에 속한 그릇은 闕内の 일반 관청에 속한 그릇과의 구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로 '大·中·世'명은 관요성립 이전에 지방에서 제작된 분청자와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된 자기에 표시되었다(도 4, 5, 6).⁴²



도 4 <분청자'大'명저부편>, 현재높이 5.9cm, 경북 고령 사부리 가마터 출토, 대동문화재연구원



도 5 <청자'中'명저부편>, 현재높이 5.1cm, 서울 세종로구역 2지구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도 6 <분청자'世'명저부편>, 현재높이 2.2cm, 서울 종로 청진2-3지구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⁴¹ 경기도 광주 우산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王', '中'명을 각각 대전과 중궁전으로 해석한 선행연구는 김봉준, 『15世紀牛山里 出土 銘文白磁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66-67.

⁴² 경북 고령 사부리 가마터에서는 '大·仁·殿·世' 등의 명문이 표시된 분청자가 제작되었다. 발굴자는 출토유물의 특징들을 근거로 사부리가마의 운영시기를 1450-1470년대로 설정하였다. 大東文化財研究院, 『高靈 沙峯里窯址: 高靈 88올림픽고속도로擴張區間(第14工區)內 遺蹟試·發掘調査報告書(第Ⅱ區域)』(2012), pp.156-159. 이러한 명문은 경기도 광주 우산리 4호 가마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함께 최근 소개된 ‘處’명의 의미는 고려시대 일정한 토지와 거기에 딸린 농민을 왕족들이 사적으로 소유한 莊園을 이르는 處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⁴³ 고려 왕실은 왕족들이 소비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內處田을 소유하고 경영했다. 처전은 忠烈王(재위 1274-1308) 이전까지는 內莊宅, 이후는 內庫, 忠宣王(재위 1298, 1308-1313) 때부터는 料物庫에서 관리하는 왕실 직속의 사적재산이었다.⁴⁴ 그러므로 조선 전기 왕실의 내용재산에 해당하는 백자에 ‘處’자를 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전, 중궁전은 궁궐에서도 大內에 해당한다. 대내에서 사용되는 內用物品의 수급을 담당했던 관청은 內需司였다.⁴⁵ 내수사는 왕실이 사용하는 비용을 마련하고 물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조선 초기 倉庫田, 宮司田과 연결된다.⁴⁶ 조선의 국왕은 내수사를 통해 內用 재산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내수사는 국왕의 개인적인 지출이나 대내의 재산을 관리했다.⁴⁷

내수사는 내용재산의 운용뿐만 아니라 내용의 잡물, 미곡, 포목 등을 관장했으므로 대전, 중궁전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품을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제공했다. 또한 내수사는 대내의 전각뿐만 아니라 일반 왕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도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내용재산 중에도 왕족에게 제공되거나 내수사의 일반 업무에 사용되는 그릇에는 ‘處’자를 표시하고, 대전, 중궁전, 세자전에서 사용되는 백자에는 별도로 ‘大·中·世’명을 표시하여 세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사가 관장하는 대내의 전각이 여러 곳이므로 물품에 명문을 표시해 둔다면 전각별로 뒤섞이지 않고 궁궐의 예법에 맞게 물품을 출납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⁸

43 최근 서울지역에서 출토된 ‘處’명 백자에 대해서는 박정민, 『‘處’명백자를 통해 본 조선 전기 內需司의 왕실용 백자 제작』, 『야외고고학』 22(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pp. 53-74.

44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45 『經國大典』에 내수사는 內用的 米布와 잡물, 노비를 관리하는 정5품의 衙門으로 명시된다. 『經國大典』卷1, 吏曹 京官職.

46 창고전과 궁사전은 원래 ‘五庫七宮’과 같은 私藏의 통칭이며 고려 왕실로부터 승계된 재산과 咸吉道 일대에 자리했던 李成桂가문의 사유재산을 포함한다. 이는 本宮재산이라고도 지칭되었으며 1423년(世宗 5) 전후에 생긴 內需所가 1466년(世祖 12)에 內需司로 확대 개편되었다.

47 김종문, 『朝鮮前期 內需司 長利制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19-23.

48 『世祖實錄』 29卷, 8年(1462) 11月 30日 庚申條. 사정전에 나아가서 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고 2품 이상에게 入侍하기를 명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예조판서 李克培에게 이르기를, “名分을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거늘, 어제 司饗院에서 進膳하는 데에 世子の 器皿을 섞어 썼으니 심히 불가하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릇을 같이하고 임금과 신하가 그릇을 같이 하며 주인과 종이 그릇을 같이 하는 것이니, 명분이 어디에 있으며 野人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세자도 또한 御膳의 일을 보살피는데, 무엇이 御膳보다 더 크겠는가? 사용원별좌의 죄가 더욱 중하니 정녕코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大·中·世·處’명은 ‘天·地·玄·黃’명과 달리 직접적인 사용처를 나타낸다. 천자문의 자호가 표시된 그릇의 사용자는 사용원의 음식사무와 연계된 불특정 다수인데 비해 내수사가 제작하고 관리했던 ‘大·中·世·處’명이 표시된 그릇은 제작시점부터 그 사용처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관요백자에 ‘大·中·世·處’와 ‘天·地·玄·黃’의 二元的 명문이 등장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사용원이 담당하는 음식사무에 사용되는 백자와 내수사의 내용물 품을 구분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관요성립 이후에 등장하는 ‘大·中·世·處’명은 천자문의 자호처럼 백자의 굽 안쪽에 유면음 각기법으로 주로 표시되는 가운데, 일부 ‘世’와 ‘處’명은 철화안료로 표시되기도 하고 청자에도 표시된다. ‘世’와 ‘處’명이 청자에도 표시되는 상황은 ‘天·地·玄·黃’명과 ‘大·中’명이 백자에만 표시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이다.⁴⁹

또한 ‘世’와 ‘處’명은 이체자로 표시된다. 관요백자에 표시된 ‘世’자의 이체자는 조선 전기 문헌자료들에서도 확인되며,⁵⁰ ‘處’자는 𠄎변이 사라진 ‘處’자의 이체자로 표시된다. 특히 ‘處’자의 경우 획순이 많아 실제 백자에 명문으로 표시될 때는 획순이 간략한 형태의 이체자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요백자에 표시되는 ‘天·地·玄·黃’명은 황자만이 간혹 이체자로 등장하고 나머지 자호들은 부분적인 서체의 차이만이 드러날 뿐이다.⁵¹

‘大·中·世·處’명 백자의 출토상황을 통해 해당 유물의 사용범위를 파악해보자. 우선 내수사에서 제작한 관요자기는 사용원의 ‘天·地·玄·黃’명 백자에 비해 매우 적게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수사의 사기장은 6명으로 380명이 배속된 사용원과는 백자 제작요건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실제 전세되거나 출토되는 유물 역시 매우 희소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大·中’명 백자는 출토사례가 적고, 궁궐 혹은 궁궐의 인접지역에서 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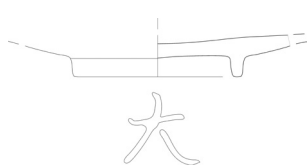
49 비록 壬辰倭亂(1592-1598) 이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실록기사를 보면 당시의 청자는 東宮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을 조선 전기로 소급시켜 청자를 세자전의 전유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 전기 내수사의 주도로 제작된 관요명문자기 중에 ‘世’와 ‘處’명의 그릇은 백자와 소량의 청자로 제작되었음은 인지할 수 있다. 『光海君日記』 102卷, 8年(1616) 4月 23日 壬戌條. …(전략) 사용원의 沙器에 이르러서는 大殿은 백자기를 쓰고 동궁은 청자기를 쓰며 내자시·내섬시·예빈사에서 쓰는 것은 모두 예전 규례대로 靑紅阿里를 씁니다. (후략)…

50 이 글에서 다루는 ‘世’명 백자의 명문과 같은 이체자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헌은 『牧隱詩精選』이다. 이 책은 12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牧隱 李穡(1328-1396)의 증손인 李封이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간행 시기는 이봉이 전주부윤으로 재직하고 있던 1482년 2월부터 1484년 9월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으로 비정할 수 있다. 어강석, 『牧隱詩精選』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藏書閣』 28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 4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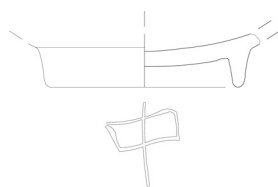
51 관요백자에 표시된 ‘天·地·玄·黃’명의 서체에 대한 비교분석은 박정민, 앞의 논문(2014), pp. 152-154.



도 7 <백자'大'명저부편>, 현재
높이 2.4cm, 경북궁 흥복전
지 출토, 국립문화재연구소



도 8 <백자'大'명저부편>, 현재높이
2.6cm, 서울 종로 청진8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도 9 <백자'中'명저부편>, 현재높이
2.2cm,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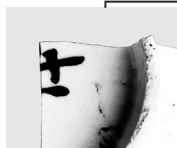
<백자'世'명저부편>, 현재높이 2.4cm



<백자'處'명저부편>, 현재높이 4.7cm



<백자'世'명저부편>, 현재높이 4.1cm



<백자'世'명저부편>, 현재높이 2.7cm



<백자'處'명저부편>, 현재높이 3.1cm

도 10 도성 내 '世·處'명 백자와 청자 출토위치

량이 출토된다(도 7, 8, 9). 이러한 현상은 대전과 중궁전에 속한 물품이 다른 전각의 물품과 혼용되지 않기 위해 그릇에 명문을 표시한 근본적인 목적이 실효를 거둔 결과로 사료된다.

실제 궁 밖으로 하사되는 宣醮과 宣飯은 주로 사용원이 담당했으므로 그 때 사용되는 그릇 역시 사용원의 백자였을 것이다. 따라서 大內에 속한 백자가 직접 궐 밖으로 보내지는 일은 적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관요가마에서도 '大·中' 등의 명문이 표시된 백자가 매우 적게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애초의 생산비중도 낮았음을 알 수 있다.

‘卍’명 백자와 청자 역시 주로 궁궐과 관청이 밀집되어 있는 도성 안에서 소량 출토된다(도 10). 특히 육조거리와 종로대로가 만나는 청진지구와 세종로지구에서 ‘卍’명 백자와 청자가 주로 출토되는 것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왕족들과 세자전의 교류의 결과물로 간주된다. 실제로 세자 혹은 세자빈이 병들면 궁궐 인근에 자리한 왕족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병을 치료했다.⁵² 이 때 궐 밖에서 세자가 사용하는 물품은 세자전에서 충당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동대문 쪽에서 출토된 ‘卍’명 백자 역시 해당지역에 자리했던 훈련원 등의 관청과 세자전의 연계를 드러내는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

궐 밖에 거주하는 왕족이나 신료들과 국왕, 왕비, 세자의 관계 때문에 ‘大·中·卍’명의 백자와 청자가 도성의 일부지역에서 출토되지만 ‘天·地·玄·黃’명 백자에 비하면 출토량은 극히 적은 편이다.

반면 ‘處’명 백자와 청자는 ‘大·中·卍’명이 표시된 그릇에 비하여 출토되는 범위도 넓고 빈도수도 높은 편이다.⁵³ 이는 내수사가 궁궐 밖에 거주하는 여러 왕족에게도 물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내수사는 大內에 소용되는 內用雜物의 조달을 담당했으며 해당 업무의 연장에서 궁 밖에 거주하는 왕족이 사용하는 물품도 마련했다. 특히 자녀가 많았던 국왕은 내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궁 밖에 거처하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處’명 백자와 청자가 출토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⁵⁴

내수사가 제작한 ‘大·中·卍·處’명의 백자와 청자는 주로 도성에서 출토되고 경기도 이외의 지방에서 출토되는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왕실과 밀접했던 楊州 檜巖寺址 및 도성

52 『中宗實錄』 40卷, 15年(1520) 閏8月 28日 癸丑條. 侍講院이 아뢰기를, “卍子가 여염에 오래 있는 것이 미안하니 빨리 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中宗實錄』 43卷, 17年(1522) 1月 12日 庚申條. 전교하기를, “卍子가 전일 閭閻에 避接하여 있는 동안은 마침 行幸하는 기회를 만나게 될 때만 가보았으나, 지금은 창경궁에 옮겨 와 있으니 형편이 가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세자가 選宮할 날이 매우 가까우므로 가볼 것이 없다. 다만 어제 內官을 보내 宣醮했었는데 侍講院 관원이 단지 한 사람만 있었다고 했으니, 이는 진실로 두 사람씩 항시 入直해야 한다. 또한 賓客이 밤에는 宿直한다고 하지만 晝間에도 引見한 다음 바로 떠나서는 안 된다. 대저 시강원 일은 허술한 것이 많다. (후략)”; 『中宗實錄』 60卷, 23年(1528) 2月 17日 己未條. 전교하였다. “慈旨에 ‘卍子嬪의 병 증세가 요사이 점점 침중해지고 기운이 심히 피로하고 약해진데다 구역 증세도 있어 세자가 동궁에 있는 것도 조심스러운 형편이다. 세자빈이 병 때문에 함께 거처하기를 미안해 하니, 세자빈을 齊安大君의 집에 避接시키겠다.’ 하시니, 부득이하여 피접시키는 뜻을 師傅에게 말하라”.

53 ‘處’명 백자의 출토 현황과 출토 유형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정민, 앞의 논문(2015), pp.56-59.

54 조선 국왕들이 내수사를 이용하여 궁 밖의 자녀를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박정민, 앞의 논문(2015), pp.60-64.

외곽의 고분에서만 출토되었다(도 11).⁵⁵ ‘大·中·世·處’명 백자와 청자의 출토양상은 천자문의 자호가 표시된 백자가 도성의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두 종류의 명문백자가 출토되는 범위가 다른 것은 국가의 음식사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했던 사용원과 내용물품을 주로 공급했던 내수사의 업무 폭과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大·中·世·處’는 관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사용되었던 명문이다. 경기도 광주 우산리 4호 가마에서는 ‘大’, ‘中’, ‘仁’, ‘貴’, ‘殿’ 등 사용처를 의미하는 다수의 명문이 표시된 그릇이 출토되었다.⁵⁶ 최근 우산리 4호 가마의 발굴조사에서 ‘處’명이 표시된 저부편도 출토되어 주목된다.⁵⁷ 이러한 명문은 대부분 굽의 안쪽에 음각기법으로 표시되어 관요 성립 이후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유면음각명문과는 구분된다. 관요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릇에 표시되었던 ‘大’, ‘中’, ‘仁’, ‘貴’, ‘殿’, ‘處’ 등

다양한 사용처를 지칭하는 명문은 관요성립과 함께 ‘大·中·世·處’ 등 內用범주를 포괄하는 명문으로 최종 귀결되었고, 사용원에서 범용되는 백자에는 새로이 ‘天·地·玄·黃’명 표시되어 제작과 관리 주체에 따른 명문구분 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요성립 이후 어느 시점부터 관요명문이 ‘左·右’로 전환되는 1560년대까지는 같은 가마에서 ‘天·地·玄·黃’명과 ‘大·中·世·處’명의 백자가 함께 제작되었을 것이






도 11 ‘處’명 백자와 청자 출토유적

⁵⁵ 도성 밖에서 출토된 ‘處’명 백자와 청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정민, 앞의 논문(2015), p.58.

⁵⁶ 김봉준, 앞의 논문(2007), pp.108-109.

⁵⁷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4차 시·발굴조사: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2015), p.20.

〈표 4〉 경기도 광주 우산리 14호 출토 명문백자

도판			
명문	中	世	地
비고	굽지름 9cm 경기도자박물관	굽지름 7.4cm 경기도자박물관	굽지름 7.8cm 경기도자박물관

다.⁵⁸ 이러한 사실은 최근 이루어진 우산리 14호 가마의 시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산리 14호 가마에서는 ‘世’와 ‘地’명을 표시한 백자와 ‘中’과 ‘地’명이 유면음각기법으로 표시된 백자가 함께 출토되었다(표 4).⁵⁹

관요백자에 표시되던 ‘天·地·玄·黃’명과 ‘大·中·世·處’명은 1560년대가 지나면서 ‘左·右·別’이라는 새로운 명문으로 대체된다.⁶⁰

16세기 전반부터 조선의 관영수공업체제는 점차 해이해지고 官工匠의 입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그 전까지 관요백자에 표시된 명문이 그릇의 출납과 사용처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근거였다면, 1560년대 이후에는 左邊, 右邊으로 나뉜 백자의 생산 집단 중에 누가 그릇의 생산을 담당했는지 표시하여 백자의 제작상황을 통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명문의 변화를 통해 관요백자의 통제방식도 바뀌었음을 살필 수 있다.⁶¹

⁵⁸ ‘大·中·世·處’명 백자가 ‘天·地·玄·黃’명 백자와 같은 시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호림박물관 소장 〈백자철화處명접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당유물은 철화로 표시된 ‘處’명 옆에 ‘黃’명이 점각되었다. 이렇게 내수사와 사용원에서 사용된 이원적 명문이 한 유물에 한꺼번에 등장한 사례는 이 유물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물이 등장하는 것은 사용원과 내수사가 동일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관청 간의 물품이 이속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世祖實錄』 46卷, 14年(1468) 5月 25日 甲申條, 金輔가 頭目 15인을 거느리고 長湍으로 가니 分禮賓寺가 洪濟院에서 전송하였다. …(중략)… 內需司·司饗院의 魚人을 거느려 따르게 하고 (후략)… 〈백자철화處명접시〉에 대한 자세한 접근은 박정민, 앞의 논문(2014), p. 65. 참조.

⁵⁹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3차 시·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5);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3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pp. 76-77.

⁶⁰ 출토된 ‘天·地·玄·黃’명 백자를 통하여 관요의 성립 이후부터 1560년대까지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관요가마터들에 대한 정리는 박정민, 앞의 논문(2014), pp. 127-139.

⁶¹ 16세기 후반 백자명문의 변화원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박정민, 앞의 논문(2014), pp. 155-164; 박정민·송호진·여영남, 「서울지역 출토 조선 전기 백자의 출토양상」, 『제10회 경기도자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최근 발굴 조사된 가마터 조사성과』 (경기도자박물관, 2015), p. 73.

IV. 사용원과 내수사의 관요백자 생산

사용원은 관요백자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전기 관요백자에는 二元的 명문이 표시되었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관요백자 제작과 관리를 사용원뿐만 아니라 내수사도 담당했기 때문이다.

명문이 표시된 관요백자는 대부분 食器였으므로 외형이 비슷한 그릇이 관청 간에 뒤섞이는 것을 방지해야만 했다. 그래서 사용원은 통상업무에 활용되는 백자의 관리를 4명의 提調별로 구분하기 위해 ‘天·地·玄·黃’명을 사용하였고, 내수사는 담당하는 물품을 大内の 사용처별로 구분하고자 ‘大·中·世·處’명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요백자의 명문은 이원적인 체계로 등장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원과 내수사 모두 왕실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다. 사용원과 내수사의 업무에는 모두 宦官이 참여했다. 특히 내수사는 환관이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궁궐의 음식관련 사무와 진상품을 책임졌던 사용원에도 많은 환관이 배치되었다.⁶² 실제 조선 전기 사대부관료가 사용원을 인식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사용원이 주로 내시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³ 따라서 관요백자를 관리하는 실무자 중에도 다수의 환관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용원과 내수사는 담당하는 업무의 특징과 소속된 환관으로 인하여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두 관청은 이러한 업무구조와 성격을 기초로 관요백자를 함께 제작했다.

다만 사용원은 궐내의 음식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관청이니 만큼 대량의 백자가 필요했던 것에 비하여 내수사는 내용물품의 조달만을 관장했으므로 애초부터 필요한 백자의 수요량이 적었다. 필요한 백자의 수요량 차이는 380명과 6명이라는 배속된 사기장 숫자의 차이로 연결되었다.

내수사는 사용원에 비하여 백자의 수요량이 적었다. 그 때문에 조선 전기 관요운영은 사용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내수사의 역할은 배속된 사기장의 숫자만큼 한정적인 규모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백자 등의 內用雜物을 직접 생산하던 내수사는 16세기를 거치며 점차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해당시기 국왕들은 내수사의 長利를 통해 내용재산을 증식시

⁶² 내수사를 구성했던 환관의 역할에서 대한 구체적인 정리는 박정민, 앞의 논문(2015), pp.67-71.

⁶³ 『燕山君日記』 4卷, 1年(1495) 4月 20日 甲戌條. 前 昌原府使 趙之瑞가 晉州에 있으면서 封事를 올려, …(중략)…《詩經》에 이르기를 ‘膳夫가 좌우로 있다. 하였는데, 지금의 司饗院은 바로 옛날의 선부입니다. 임금께서 드시는 膳物은 모두 여러 내시들에게 맡겨져 굴러서 저자의 물건으로 되고 있사오니, (후략)….

키는데 관심이 높았다. 왕실은 이렇게 마련된 재산을 이용하여 內願堂을 지원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⁶⁴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 관요백자의 생산에 참여했던 내수사의 비중은 차츰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이후의 관요운영은 사용원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요에 대한 인식도 오직 사용원 중심으로만 정착되었다.

V. 맺음말

이제까지 조선 전기 官窯白瓷에 표시된 명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天·地·玄·黃’명과 ‘大·中·世·處’명 등 두 개의 큰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여 조선 전기 관요백자의 생산에 기존에 알려진 司饗院 이외에 內需司가 참여했음을 추론하였다.

사용원에서 사용되는 백자에는 ‘天·地·玄·黃’명 등 4개의 천자문 자호가 표시되었으며, 자호의 의미는 사용원의 각종 업무의 책임자이자 실무관리자였던 4명의 提調를 기준으로 구분된 물품관리의 단위로 사료된다. 사용원은 國初의 司饗房 시절부터 司饗四番을 기준으로 인적구성을 갖추었으며 그 후로도 사용원은 기본적으로 4의 배수로 提調의 수를 정했다. 따라서 물품의 관리 역시 4개의 구분단위로 이루어져 제조별 담당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관요백자의 생산에는 사용원뿐만 아니라 내수사도 일정부분 참여했다. 내수사의 주요 임무는 왕실의 內用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내수사가 제작한 內用瓷器에는 사용원의 주도로 제작된 백자와는 구분되는 ‘大·中·世·處’명을 표시했다. 해당명문은 각각 大殿, 中宮殿, 世子殿과 그 외의 왕족과 내수사의 범용업무를 위한 그릇을 의미할 것이다.

사용원과 내수사가 관요백자에 서로 다른 명문을 표시한 것은 國用과 內用的 물품을 구별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재산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조선 전기 관요백자의 명문과 사기장의 배속 상황을 통해 내수사의 백자생산을 살필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연구 과제도 많다. 우선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와 연구 성과를 통해서만 관요 성립 이후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天·地·玄·黃’명과 ‘大·中·世·處’명의 백

⁶⁴ 윤인숙, 「朝鮮前期 內需司 폐지 논쟁과 君主의 위상」, 『대동문화연구』 84(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pp.133-163; 한춘순, 「明宗代 王室의 內需司 運用」, 『인문학연구』 3(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pp.391-439.

자가 구분, 제작되었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최근 서울지역에서 ‘天·地·玄·黃’명과 ‘大·中·世·處’명의 백자와 함께 출토된 ‘豐’, ‘齊’ 등 한 글자[一字]의 명문이 표시된 관요백자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관요가 성립된 이후 사옹원과 내수사의 이원적 명문 이외에도 또 다른 명문으로 수요처를 구분했던 원인과 배경을 고찰한다면 조선 전기 관요운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요 성립 이후 도입된 二元的 체제의 명문이 16세기 후반에 ‘左·右’명으로 변환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현재 제시된 수준보다 더욱 정교하게 논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문의 변화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조선 전기 관요백자의 생산에 참여했던 내수사가 언제까지 백자를 생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요의 명문백자가 출토되는 유적과 개별 유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성격규명을 통해 당시 관요백자의 활용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차후연구는 건축사와 정치사를 아우르는 학문분야 간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미결과제는 차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하나씩 접근하겠다.

***주제어(key words)** _내수사(Naesusa), 사옹원(Saongwon), 天地玄黃(CheonJiHyunHwang), 大中世處(DaeJung Secheo), 관요백자(Porcelain of Royal Kiln), 명문백자(Porcelain with Inscription)

■ 투고일 2015년 11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5년 12월 8일 |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26일 ■

참고문헌

1. 사료

『世祖實錄』

『世宗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光海君日記』

2. 단행본 및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한국 한자 이체자 조사』, 200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瑞山 普願寺址Ⅰ』, 2010.

_____, 『瑞山 普願寺址Ⅱ』, 2012.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3차 시·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5.

_____,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3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_____,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4차 시·발굴조사: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5.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大東文化財研究院, 『高靈 沙堯里窯址 : 高靈 88올림픽고속道路 擴張區間(第14工區)內 遺蹟 試·發掘調查報告書(第Ⅱ區域)』, 2012.

윤국일 옮김, 『新編 經國大典』, 신서원, 2005.

윤용이, 『韓國陶器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화재청, 『傳 世宗大王 初葬地(舊 英陵) 發掘調查報告書』, 2009.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 청진12~16지구유적』, 2013.

_____, 『종로 청진2~3지구유적』, 2013.

_____, 『서울 세종로구역 2지구유적』, 2013.

3. 학위논문

- 김봉준, 『15世紀 牛山里 出土 銘文白磁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종문, 『朝鮮前期 內需司 長利制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정민,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전승창,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4. 학술논문

- 박정민·송호진·여영남, 「서울지역 출토 조선 전기 백자의 출토양상」, 『제10회 경기도지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최근 발굴 조사된 가마터 조사성과』, 2015. 12, pp. 67-81.
- 박정민, 「處명백자를 통해 본 조선 전기 內需司의 왕실용 백자제작」, 『야외고고학』 22, 2015. 3, pp. 53-74.
- _____, 「조선 15세기 전반 경기도 永平縣의 백자제작 배경과 특징」, 『강좌미술사』 44, 2015. 6, pp. 267-291.
- _____, 「點刻銘이 부가된 ‘天·地·玄·黃’ 銘백자들의 사용시기와 성격」, 『역사와 담론』 61, 2012. 1, pp. 445-476.
- _____, 「명문백자로 본 15세기 양구(楊口)지역 요업의 성격」, 『강좌미술사』 32, 2009. 7, pp. 75-102.
- 박형순, 「조선시대 관요 백자 명문의 성격」, 『역사와 담론』 65, 2013. 1, pp. 519-561.
- 어강석, 「『牧隱詩精選』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藏書閣』 28집, 2012. 10, pp. 46-71.
- 오정섭, 「高麗末·朝鮮初各司位田을 통해서 본 중앙재정」, 『한국사론』 27, 1992. 6, pp. 135-206.
- 윤인숙, 「朝鮮前期 內需司 폐지 논쟁과 君主의 위상」, 『대동문화연구』 84, 2013. 1, pp. 133-163.
- 한춘순, 「明宗代 王室의 內需司 運用」, 『인문학연구』 3, 1999. 12, pp. 391-439.

국문초록

조선 전기 官窯白瓷에 표시된 명문은 ‘天·地·玄·黃’과 ‘大·中·世·處’의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각 명문 그룹의 의미를 파악하여 조선 전기 관요백자의 생산에 司饗院과 內需司가 함께 참여했음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에 표시된 명문이 二元的으로 구분되는 것은 관요백자의 제작체와 사용처 역시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용원에서 사용되는 백자에는 ‘天·地·玄·黃’ 등 4개의 천자문 자호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사용원의 각종 업무의 실무책임자였던 4명의 提調를 의미할 것이다. 사용원은 國初의 사용방 시절부터 司饗四番을 기준으로 인적구성을 갖추었으며 그 후로도 사용원의 제조는 기본적으로 4의 배수로 정해졌다. 따라서 물품의 관리 역시 4개의 구분단위로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사용원이 관리했던 관요백자에는 ‘天·地·玄·黃’의 천자문 자호가 표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관요백자의 생산에는 사용원뿐만 아니라 내수사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했다. 내수사의 주된 업무는 왕실의 內用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조달했다. 그로 인하여 내수사는 시기장 등의 京工匠을 배속 받아 필요한 內用瓷器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따라서 내수사가 관리하는 백자에는 사용원의 백자와는 달리 ‘大·中·世·處’명을 표시하여 구분했다. 해당명문은 각각 大殿, 中宮殿, 世子殿과 그 외의 왕족 및 내수사의 범용을 위한 그릇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원과 내수사가 관요백자에 서로 다른 명문을 표시한 것은 國用과 內用的 물품을 구별하여 성격이 다른 물품이 서로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The Dualism Possessed by the Inscription of White Porcelain Produced in the Royal Kiln(官窯)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Royal Kiln in Joseon Period

Park Jung Mi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royal kiln(官窯) in Joseon period, the inscription, which was marked on white porcelain, is divided into two groups of ‘Cheon(天)·Ji(地)·Hyeon(玄)·Hwang(黃)’ and ‘Dae(大)·Jung(中)·Se(世)·Cheo(處)’.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at both Saongwon(司饗院) and Naesusa(內需司) participated in manufacturing the white porcelain of the royal kiln in the early Joseon period by grasping a meaning of each inscription group. What is dually divided the inscription that was marked on the white porcelain produced in the royal kiln is the phenomenon that is shown due to being different from the producing subject and the using source in the white porcelain produced in the royal kiln.

On the white porcelain that is used in Saongwon, first four pieces of characters in the Thousand-Character Classic such as ‘Cheon·Ji·Hyeon·Hwang’ were expressed. This division may imply four Jejo(提調)s who had been working-level personnel and managing officer in many tasks of Saongwon. Saongwon had a constituent of human resources based on Saongsabeon(司饗四番) which separate constituent of human resources and tasks by the method of quartering from the days of Saongbang(司饗房) in the beginning of the

*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ational foundation. Even after it, Jejo of Saongwon was basically set to be a multiple of four. Accordingly, even the management of the goods was made with four division units, thereby being judged to have been indicated characters of the Thousand-Character Classic in 'Cheon · Ji · Hyeon · Hwang' on the white porcelain produced in the royal kiln that had been administered by Saongwon.

The white porcelain produced in the royal kiln of the early Joseon period was taken charge of a partial role even by Naesusa as well as Saongwon. Unlike Saongwon, Naesusa managed the privy purse asset which designated as Naeyong(內用) of royal family and prepared several kinds of goods. Naesusa itself manufactured a group of white porcelain that is necessary for kind of privy purse use. Accordingly, unlike the white porcelain of Saongwon, the white porcelain that is managed by Naesusa was divided by being marked the name of 'Dae · Jung · Se · Cheo.' The corresponding inscription is considered to imply a bowl, respectively, for a king's palace(大殿), place of the Queen(中宮殿), place of crown prince(世子殿), other royal family and for a wide use of Naesusa.

What Saongwon and Naesusa indicate the mutually different inscription on the white porcelain produced in the royal kiln is to prevent the goods with a different character from being mutually mixed by distinguishing the goods between national use called Gukyong(國用) and privy purse refer to Naeyong.